

심원(心遠) 송복 교수와의 대담: 문사철(文史哲)의 동양사상, 한국사회와 인간을 만나다*

일시: 2022년 12월 23일, 2023년 2월 24일, 2023년 5월 26일

장소: 서울 은평구 송복 교수 연구실 외

대담: 정학섭(전북대 사회학과)

유승무(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최우영(전북대 사회학과)

정승안(동명대 선명상치유학과)

이명호(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

박수호(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편집자 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속에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라는 탄식이 절로 일어나는 요즘이다. 세기말의 혼란스러움을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현실은 안개 속에 갇혀 막막하기만 하다. 인공지능이 어찌고, 로봇이 어찌고 하던 이야기는 메타버스니 챗GPT니 하는 머나먼 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든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길을 비춰주는 등대를 간절히 희망한다.

막막한 현실에 부딪칠 때마다 우리 학회에서는 세상사를 통찰할 수 있는 해안과 탁견을 갖춘 어른들을 찾아 지혜를 구해왔다. 여덟 번째로 {해안과 논찬} 코너를 통해 뵈게 된 분은 심원 송복 교수이다. 심원 송복 교수는 1960년대에는 《사상계》, 《청맥》, 《서울신문》 등에서 기자로서 한국 사회의 민낯과 속살을 마주했고, 1975년 이후 연세대학교

* 정리 및 기록: 최우영·정승안·박수호

2 사회 사상과 문화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적 잣대로 한국 사회를 분석해 왔다. 한국 사회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공헌한 심원 송복 교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저술과 신문칼럼을 통해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한 대표적 학자이자 논객이다. 2003년 정년퇴임 이후에도 후학들이 선불리 다가서지 못하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지금까지 왕성한 연구와 집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서애 류성룡을 매개로 한국사와 동양학으로 학문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심원 송복 교수의 학문적 여정은 아직도 거침이 없어 보인다.

세상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조하는 대신 앞에서 이끌어주는 심원 송복 교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여쭙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심원 선생님께 전해 올렸고, 세 차례에 걸쳐 대담을 진행했다. 기자 출신답게 날카롭고, 거침없는 답변에 시원함을 느끼기도 했고, 오랜 경험에서 길어 올린 생생한 사례들로 생동감 넘치는 대담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선생님의 유학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한국 사회의 사상적, 문화적 궤적을 되짚어 보는 기회이기도 했다.

언제나처럼 정학섭, 유승무, 최우영, 이명호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고, 멀리 부산에서 천리 길을 마다치 않고 매번 달려와 주신 정승안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요즘 들어 {해안과 논찬} 코너에 실리는 원로 선생님들의 진솔한 가르침에 사회학계의 관심이 부쩍 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 코너에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에 실린 내용은 전적으로 송복 교수님의 견해이며, 편집위원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I. 만남과 개인적 배경

유승무: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모습 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 학술지 『사회사상과 문화』에서는 우리 사회와 학계의 원로들을 찾아 학문과 사회에 대해 말씀을 듣는 “혜안과 논찬”이라는 코너를 진행해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계의 존경받는 원로시면서 특히 동양사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견으로 유명하신 터라 진작부터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에서야 말씀 여쭙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고견을 청하게 되어 감사하는 동시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후학들을 위해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학섭: 우선 개인적 배경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송 복: 나는 1937년에 고향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해군 진례면 담안(淡安)리라고 6.25때 인민군이 유일하게 들어오지 못했던 지역이었지요. 바로 그 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근처입니다. 여기서 태어나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진사(進士)를 하셔서 일제 말에 마을에 서당을 세워 서당에서 배우는 사람들 틈에 끼여서 한문을 배웠습니다. 소학과 천자문을 배웠는데 특히 소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소학을 배우면 다 배우는 것입니다. 한훤당 김굉필이 소학동자¹⁾라고 불리었는데, 논어·맹자·대학·중용이 모두 소학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현실』에 나의 학문과 삶이라는 주제로 2021년부터 2022

1)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은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소학을 배웠는데, 스스로 <小學>에 심취하여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일컬으며 평생 소학을 소지하며 읽었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년 말까지 8번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미 700매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기록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9 직전까지 다루고 있는데 아마 마무리 하려면 2천매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자랄 때의 시대환경과 배경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매수와 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자서전들을 읽어보면 자신에 대한 선전이 대부분인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 선전할 게 없더군요.

유승무: 선생님의 학창 시절 분위기는 지금과 비교하여 어떠했습니까?

송 복: 일제와 해방, 그 전후 시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고등학교 때의 선생님들이 모두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본 제국대학 등의 일본 학교를 다닌 선생님들이었지요.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국어가 일본어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언어체계가 같으니까 쉽게 모국어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형님들이 일본어를 썼기에 친숙하게 같이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0~15년 이상의 선배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이들에게는 일본어가 모국어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쓴 말을 모국어로 쓰니까 일본어로 된 사고체계가 형성되어, 일본 사람들의 지식체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선생님이 문리과대학 2학년 때 문리과대학 교수로 왔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이나 서울대 선생이나 같았고, 석사·박사가 아니고 대학 졸업자가 가르치던 시대였지요. 이들의 언어는 모국어가 일본어고 일본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우리나라 말로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I. 근대운동의 의(義)와 효(效)

최우영: 모국어의 중요성과 독립운동과의 관계에 특별히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근대운동에 대한 평가를 의(義)와 효(效, 효율성)를 중심으로 하여 풀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송복: 김수영 시인이 쓴 시에,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시어가 일본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나는 모국어가 무엇인가에 주목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중세적인 방식이었고, 상해임시정부는 중세적인 독립운동 집단이었습니다. 오로지 의(義)만 가지고 했지, 수단이라고는 맨주먹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임란 때 우리가 일본과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장군은 녹봉도 없고 병졸도 없었습니다. 병졸은 식량이 없었습니다. 의기만으로 싸우라는 선조의 말이 우리의 독립운동과 똑같았습니다.

이에 비해 근대적인 독립운동의 핵심은 효(效)에 있습니다. 효과, 효능이 있는 것이 근대적인 활동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과 김성수입니다. 이승만은 외교로써 그 역할을 했습니다. 1941년에 *Japan Inside Out*, 즉 『일본내막기』를 썼습니다. 모두들 이승만을 전쟁광이라고 무시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따로 인정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 벅(Pearl Buck)이 『일본내막기』를 보고 이승만의 해안을 알아보고 일본이 곧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성격상 미국을 침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승만의 문장에 반한 펄 벅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일본이 진주만공격을 하면서, 이것이 이승만의 한국, 한국의 이승만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식의 외교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외교 하나로 독립을 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무기 하나 안 들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무가지보(無價之寶), 값없는 보배가 외교이고, 최고의 무기가 외교였습니다.

김성수는 보성전문, 중앙, 동아일보를 만들면서 우리 모국어를 만들었습니다. 고급 모국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학인데, 하버드대와 동경대의 경우처럼 모국어를 쓰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성전문, 연희전문에 따라서 한국어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중세적인 의(義)를 가지고 군대를 비판하는 사례들이 많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투쟁은 안중근과 윤봉길이었습니다. 1932년 윤봉길의 폭탄으로 해군 대장이 불구가 되고 육군 대장이 사망하였습니다. 맥아더와 항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군 대장 바로 그였습니다. 폭탄 한 방으로 일본 사령관을 날려버렸으니, 장개석이 “우리 중국 4억 5천만, 수백만 군대가 못 하는 것을 윤봉길 혼자서 했다”고 경탄했지요.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습니까?

또 가장 효과적인 나라를 만든 것이 박정희와 백선엽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일본의 무(武)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잘 살핀 것이지요. 손자병법의 핵심되는 내용이 지피지기입니다. 지피가 핵입니다. 적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피의 핵심은, 일본의 지식이 제국대학에서, 무는 일본의 사관학교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武)에 대한 경시로 인해 사관학교에 간 사람이 없었는데 박정희와 백선엽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사정신이 무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임전무퇴의 방식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 대해 효(效)라는 각도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Ⅲ. 글쓰기와 인문학

이명호: 원래 유명하시지만 이번에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참 간결하게 글을 잘 쓰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송 복: 글이라는 것은 가독성이 있어야 합니다. readability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쓰는 글은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남한테 읽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지옥갑니다. 글을 쉽게 써야 합니다. 신문기자를 하고 교수하는 사람들은 글을 쉽게 씁니다. 데스크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글쓰기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글을 어렵게 써야 깊다는 착각을 하는데, 좋은 글은 절대로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나의 첫 출발은 저널리즘이었습니다. 1959년 2학기부터 사상계의 기자로 출발했습니다. 한 달에 8만 부 정도가 나갔는데, 동아일보가 8만 부 정도여서 사상계의 장준하씨가 부수가 똑같다고 자랑을 하곤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술지와 신문, 언론 논평지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상계가 학술적 논평과 주장과 이념적인 역할을 동시에 했었지요. 1950년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상계에서 1년 동안 잡지를 만들면서 정계와 사회계에 취재를 많이 다녔습니다. 4.19도 졸업하던 해에 발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재도 하다가 국방대학원 출입기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국방대학원이 수색에 있었고 국방대학원 교수 중에 서울대에 와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우병규(나보다 8년 선배)씨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특별했고, 들어보지 못한 색다른 강의였습니다. 국방대학원을 나왔던 사람들을 취재했더니 모두 미국에서 배우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강의를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대학에 오니까 전부 대학 졸업자였고 석사 학위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철학과 졸업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석사, 박사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불러주는 선생이었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효재 선생의 강의는 좋았습니다. 평생을 이효재 선생과 가깝게 지냈는데, 언론계와 대학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국방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 대학에서 들어보지 못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에 있던 분들은 일본에서 배운 내용으로 일본 강의를 그대로 일본 책으로 읽어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대학원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해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학통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영관급 장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16,000명 정도의 한국 군인을 가르쳤는데, 군인들을 데려다 강의를 시켰더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관학교 졸업하고 가르친 셈이지요. 그때 나에게 드는 혼자만의 생각이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이 잘난 사람들이 쿠데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진국 곳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쿠데타가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5월 10일에 군에 입대를 하고 35개월을 복무했는데, 입대 일주일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승안: 학문하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사회학이라는 제한된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문사철의 인문학을 강조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송 복: 나의 모든 저서나 저술, 투고와 내용의 기초는 인문학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지평이고, 전망이자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

학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학문의 기초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인문학은 문사철입니다. 문학은 시와 소설이 대표적입니다. 시와 소설에 대해 왜 사회과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너희들 나중에 학자가 되고 싶거나 글을 써서 먹고살고 싶으면 시와 소설 300권은 읽어야 한다고 저는 대답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문장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맹자』에 불성장(不成章)이면 부달(不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느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장을 이루려면 문사철, 인문학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시와 소설을 해야 합니다. 시와 소설은 언어의 공장입니다. 말 공장이고 글 공장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용량이 너의 세계와 비례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와 소설은 말 공장인 겁니다. 러시아어가 유명한 것은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안톤 체호프와 같은 천재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감동의 언어는 소설에서 나옵니다. 가슴이 늘 뛰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동하는 것은 가슴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무지개 보면 내 가슴 뛰더라. 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장차도 그러하리. 만일 그렇지 못하면 죽느니만 못하리. 내 살아있는 동안에 늘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리(워즈워드의 무지개).” 무지개를 보고도 감동을 못 하면 그것은 죽은 가슴입니다. 『맹자』에 나오는데 대인자(大人者)라는 것은 부실 적자지심(不失 赤子之心)입니다. 큰 인물은 어린애 적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으로 어린이의 마음은 감동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날마다 날마다 보는 것이 감동이지요. 감동의 세계에 접해 있어야 늘 살아있는 가슴이 뛰는 살아있는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독성이 있는 글을 쓰고, 쉬운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이 구

사하지 않는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이 문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많이 외웁니다.

박수호: 시 낭송 대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송 복: 미당 서정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0년인가. 미당이 1915년생입니다. 미당은 타고난 시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인이었습니다. 2002년, 미당 2주기에 긴 서사시를 낭송했습니다. 미당 시 중에서 ‘종천순일파?’라는 시가 있습니다. 미당이 “나는 하늘을 따라서 일본에 순종한 사람이다. 친일파가 아니다. 끈끈한 것만을 한 게 친일파이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급 주는 직장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을 했는데 내가 무슨 친일파인가? 내가 태어나니까 내 하늘은 일본하늘이더라. 그래서 하늘에 순종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친일파인가?” 라는 서사시를 10여 페이지 썼습니다. 바로 이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그 때 정년 무렵의 초롱초롱할 때여서 그랬는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글이란 가독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독성이 있는 것이 글입니다. 그리고 남이 감동 있게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시와 소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시와 소설은 언어의 양을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이문열 같은 작가들이 돋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시와 소설 그러니까 문(文)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니 이번 차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송 복: 예. 역사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회과

학자의 가장 큰 결함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사, 중국사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앙드레 모로아(Andre Maurois)가 쓴 미국사, 영국사 같은 책들을 읽지 않아요. 신용석이라는 프랑스 특파원이 있는데, 조선일보 프랑스 특파원을 지냈고, 그 어머니가 이성자 화가입니다. 그 아버지도 재불 화가로 이름난 분이지요. 이 신용석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앙드레 모로아의 3부작, 영국사, 프랑스사, 미국사를 번역했습니다. 글도 잘 썼고, 번역도 잘했습니다. 내 손자가 뉴욕대학 경제학과에 다니는데, 이걸 꼭 읽으라고 했더니 반만 보다가 말더군요(일동 웃음). 역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외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일본사와 영국사, 독일사, 프랑스사를 해야 국수주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내 동기 가운데 이성무라고 있습니다. 좋은 책도 많이 내고 했는데, 이성무와 같이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조선이 어떻게 500년을 갔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유교와 덕치 덕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덕치라는 것이 법치가 되면 사람이 사는데 실제 덕치가 되면 일반 백성들은 밟혀 죽습니다. 예컨대 세종 때를 보면 노비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 농민들이 이앙을 해야 수확이 늘어나는데 이앙을 하지 말라고 세종이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래 이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비종모법을 만들어서 세종 때 노비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윗사람 고소금지법도 만들었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 못 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법에 한자 말고 다른 글자를 쓰는 것을 금하고 있어서 실제 반포를 못 하고 세종이 전전궁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황제의 글자창제방지법이 있어, 실제로는 조용히 반포를 하였습니다. 해서 갑오경장까지 한글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조 때 책을 만들어 팔고 다니는 사람(책패, 책 거간꾼)이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이 글자를 알게 만든다고 해서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약용 시에 조선 시대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싶은 대목이 여럿 나옵니다. 시골 농가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관가에서 태어난 애를 보고 군포를 내라고 했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군포를 내야하는 데 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집에 있던 소를 몰고 가 버리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소가 우리 집 전 재산인데, 군포를 못 낸다고 끌고 가니 남편이 화가 나서 칼로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부인이 이 성기를 들고 관가로 찾아가서 이래도 군포를 바치라고 할 참이나고 처절히 항의하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²⁾ 이런 나라가 조선이었습시다. 정약용의 시니 정조 때 이야기지요. 정조도 최고의 임금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년을 갔는가? 이에 대해서는 나의 논문이 있는데, 국사학자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국사학자들은 그야말로 성군들이 많아서 유교적 덕치로 갔고 그것이 500년 지속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가난함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오래갑니다. 백성들에게 에너지가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홍경래가 모든 민력을 모아서 중앙 정부에 대항했지만, 2개월을 못 버틸 정도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의 힘을 다 모아도 가난하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인(中人)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200~250년 주기로 바뀌었는데, 지배엘리트와 대항엘리트가 대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항엘리트가 아전, 율관, 의관, 역관(최남선, 오경석-오세창...전부 역관 집안)과 같은 중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인이 실상 지배엘리트보다 더 잘살았습니다. 아전이 가진 노비 수가 양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의관이나 역관은 모두 잘살았습니다. 청마 유치환도 의관 집안이었고, 월탄 박종화도 중인 집안, 근세의 이름난 사람들은

2) 다산 정약용의 시 ‘애절양(哀絶陽)’을 말한다.

모두 중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배엘리트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서 조선이 그렇게 오래갔던 것입니다.

정학섭: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되어 정말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의의를 선생님은 어떻게 새기고 계시며, 또 역사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송 복: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역사가 경험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나온 경험이 역사인데,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통찰력이 발달합니다. ‘insightness’, 통찰력은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통찰입니다.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통찰력을 지니게 됩니다. 역사는 통찰의 언어입니다. 현재를 성찰하게 하고 과거를 깊이 분석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갖게 하지요. 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허튼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받은 경험을 스스로 체화한 사람을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의 대표가 영국입니다. “너희들 그거 경험해봤느냐?”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증명된 것입니다. 경험은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보수는 경험을 기초로 하고, 진보는 이성을 기초로 합니다. 빛나는 이성과 두뇌로써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성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사회를 조망하자고 하는 진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높이 떠받들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뛰어난 이성으로 현실을 조망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간극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간극이 큰 만큼, 그 사회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를 두고, 32살짜리가 프랑스혁명을 대표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2만 명을 학살하였고 자기도 그렇게 죽습니다. 많이 죽인 자는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법입니다. 5.18도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법이지요. 혁명으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결국에는 스스로 그렇게 당하기 마련입니다. 파리코뮌 때도 피가 무릎에 차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과장, 확신해서 목숨을 끊게 만듭니까? 영국 사람들이 경험에 기반해서 해라, 경험에서 말해 주지 않는 것은 천 번, 만 번 생각해서 하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도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경험에 의해, 경험에 바탕 해서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줄어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언어를 역사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책은 기본적으로 200권은 읽어야 한다고 나는 늘 강조해왔습니다. 『삼국지연의』, 진수의 『정사 삼국지』, 사마천의 『사기』는 꼭 읽어야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 사람이 세계에 내뿜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사마천이 그 열전을 쓰는데 그 빛나는 문장에다가 사람에 대한 통찰력, 행위에 대한 통찰력,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책을 꼭 200권은 읽어야 한다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학문을 해서 후세에 글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역사 공부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호: 문(文)과 사(史)의 의미에 대해 정말 생생하게 말씀해주셔서 실감이 납니다. 이제 철(哲)이 남았는데, 철학은 특히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철학은 또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 복: 나는 칸트, 헤겔만 철학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나처럼 ‘이와 같이 살았노라’ 하는 것은 모두 철학 책이라고 봅니다. 내가 연세대에 있으면서 미국 도서관을 시찰하고 오라고 해서, 대학도 서관이 아니고 커뮤니티 라이브러리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히 커뮤니티를 공동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에게선 실상 공동체가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동네에 가면 뮤지엄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그 지역을 말해주는 역사적인 문물을 두고 보여주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우리에게선 문물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와 돌덩어리 하나부터 그 지역의 특이한 것까지 모두를 담아 대부분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조건으로 뮤지엄이 첫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정구, 배구, 테니스, 수영, 운동장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미국 사람들)은 주중과 주말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운동을 하더군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려면 이때까지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했는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주중과 주말이 구분되는데 주말에 운동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쉬어주는 사람이 머리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말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30대가 되어도 20대와 함께 공부합니다. 3시간을 전념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인들은 앉으면 2시부터 밤새도록 앉아서 집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를 하면 전념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흔히 심원의마(心猿意馬)³⁾라고 합니다. 심원, 즉 마음은 원숭이다, 원숭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심원의마이다. 이것을 잡아주고 고정시켜 주는 것이 스포츠라는 겁니다. 스포츠를 늘 하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에서 스

3) 왕양명이 언급한 ‘마음은 원숭이같고 생각은 말과 같다’고 한 말에서 유래했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포츠를 묻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기가 다음입니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첼로가 그렇습니다. 악기를 하면 이것에서 벗어납니다. 음악을 하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악기를 조율하더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는 뮤지엄과 라이브러리, 스포츠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철학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 도서관 서가의 1/5이 전부 자서전이었습니다. 자서전이 사랑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한 것과 잘못된 것들을 모두 쓰는 것입니다. 미국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자서전이라는 생활 철학서를 읽으면서 자랍니다. 우리는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기타 남과의 교류와 사회생활 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철학은 내 입장에서, 내 생각, 내 지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철학의 본질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유의 공장입니다. 철학에서 사유의 언어가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사유의 언어는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주관에서 벗어나서 사유하게 합니다. 어려운 철학이 아니더라도 좋은 말을 쓰는 유명한 철학서들이 있겠지만, 자전적 에세이와 자서전을 통해서도 사유의 언어를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100권 정도의 철학서를 읽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길을 경험해보아야 하고, 그것도 내 눈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사철, 인문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이런 것을 읽지 않고서 글을 쓰니 남들이 쓴 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자는 글로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담으로 신문기자가 대학교수를 우습게 봅니다. 신문기자는 글을 잘못 쓰면 바로 찢리기 때문에, 그 경험 덕으로 글을 쉽게 씁니다. 논문이나 글을 쉽게 쓰자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많지요. 아무래도 그것은 인문학의 기초가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승안: 문사철의 인문학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대학은 문리대 정치학과로 가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송 복: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갔습니다. 경성 제국대학 출신의 은사가 계셨습니다. 고3 때 대학을 가야했는데 내가 살던 곳은 촌 중에서도 시골 촌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진사셨는데, 내가 7살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의 한문 서당에 가서 배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촌사람들도 법과 아니면 의과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70년 전인데도 그랬습니다. 나는 법대나 의대는 가기 싫었고, 서울대 문리과대학을 지망했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문리과-법과-상과 순이었습니다. 문리과대학을 가야했는데, 학교 소개서를 내놓고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사회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님께 사회학이 뭐하는 학문이냐고 물으니, 거기 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뭐하는 학문이라고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거기 가지마”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은사님 마음에 사회학은 사회주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기 같은 게 생겨서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정치학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치학과 갈까요?” 하니까 “너 거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학은 배울 게 없는 학문이더라, 글도 어렵고 말입니다(일동 웃음).

대학에 가니까 마침 정치와 문학을 함께하는 정문회라고 있었는데,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문회에 들어오라고 하길래 가입했습니다. 3학년 선배가 1학년 상대로 오라고 했지요. 문학도 한다고 해서 정문회 멤버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재봉(총리), 신동호(조선일보 사장), 김성우(한국일보 주필), 손세일(동아일보 논

설위원), 최서영(문필가)과 같은 사람들이 선배로서 있었습니다. 여기 가입해서 시도 쓰면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만, 하나도 당선 안 되더군요.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군대 있으면서 역작을 하나 썼습니다. 동아일보, 세대라는 잡지에서 원고료 50만 원의 소설 공모가 있었습니다. 『세대』라는 잡지에 냈는데 당시 서울에 집 한 채 값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노리고 세대에 공모했는데,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이병주(소설가)가 당선되고 내가 탈락했지요. 이병주는 와세다 출신이고, 산청 출신인데 나보다 20살 연상이었습니다. 『민족』 주필 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박수호: 오늘 자리를 열면서 학문의 토대를 문사철로 잡아주셨습니다. 학문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후학들에게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체계적 지침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오늘날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혼란이나 혼동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고려할 때, 오늘날 학문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송 복: 학문은 쉽게 얻으려고 하면 뒤집힙니다. 땀과 피가 들어가야 학문이 되는 법입니다. 이에 비해 채팅은 너무 쉽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쉬운 답은 얻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은 피와 땀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눈이 아프도록 읽어야 합니다. 챗GPT로 학문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 있기는 하겠지만, 학자는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남과 다른 글을 쓴다, 가더라도 남과 다른 길을 간다는 의미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디지털로 학문의 세계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V. 저술들과 해석

최우영: 다양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과 권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조직의 목적이 있지만 조직이 유지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수단이 목적이 되는 목적전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과두제와 민주제 두 유형이 교대되면서 균형을 이룬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접근과 해안이 우리나라의 정치나 현안에도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10년 이후의 미래 모습과 70-80년대의 모습을 대비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 복: 국가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 다 oligarchy(과두제), 즉 소수의 지배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Iron law of oligarchy*, 이는 로버트 미헬스가 독일사회당의 사례를 보고 쓴 글인데, 결국 소수가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내용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스린다는 것은 소수자 지배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 대학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온통 민주주의와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민주주의도 안되고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취재를 다녀보아도 민주주의를 할 인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들의 인성 수준은 권력적이고 독재적인 것에 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중에 옛날의 경험을 살려서 쓴 책이 『조직과 권력』입니다. 여기에는 신문기자로서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데, 세상은 민주주의가 잘 안되더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 미헬스나 가에타 노 모스카 등 2대 8로 결정된다는 논리들이 모두 이태리학과인데, 그중에서 미헬스가 말한 oligarchy는 소수 지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군주제를 하다가 귀족

제로 갔다가 이것이 타락하면 과두제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 지배에서 그 한계성을 자각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헌정제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핵심인데, 그 헌정제가 무너지면 데모크라시, 즉 민주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민주제는 우중(愚衆)이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다시 군주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치 체제가 순환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어디에도 다수가 지배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딜 가도 소수가 지배한다는 말이 주목되더군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 원형은 소수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수가 다스릴 수 없다는 자각에서 쓴 글이 과두제 이론이고, 역사가 축적이 되면 과두제와 민주제가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조직과 권력』의 핵심 내용입니다. 만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다 뽑아서 쓴 책으로, 레퍼런스만 해도 꽤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과두제로부터 학문을 시작했는데, 왜 조직이라는 말만 썼느냐 하면은 인간은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인간은 조직을 만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지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조직을 알면 근대사회이고, 그것을 모르면 중세사회입니다. 중세는 의(義)가 다스리는 사회이고 현대사회는 효(效)가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효(效)가 반영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근대조직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대조직을 보면 소수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조직은 효율성을 핵심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전치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면, 사람은 목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체(體), 즉 몸통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몸통 유지를 위해서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목적의 전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구사회학의 연구 사례를 보면, 구세군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 실현을 위해 교회나 구세군이 필요한데, 그것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목적은 뒤집어지고 수단 유지를 위해서 목적이 이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논문을 찾아보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생들에게 교회의 연보를 자료로 돈 모은 것과 지출 내역을 찾아서 본래 목적에 충실했는지 아니면 이외의 목적에 쓰여졌는지 알아보라고 숙제를 내준 적도 있습니다.

내 몸에 빗대어서 말하면, 목적도 이상도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내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몸 말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뜻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몸만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적불균형(適不均衡)’, 즉 적절한 불균형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나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불균형으로 가지만, 적절한 불균형으로 가야 합니다. 이 적절한 불균형 속에서 평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이론입니다.

정학섭: 저는 선생님의 저술 중에서도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를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성격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저술이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이 이 책에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간단히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복: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내가 자란 터전이 『논어』·『맹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때부터 평생 들던 소리가 논어에서 맹자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가치가 무엇이고 실제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논어였습니다. 논어는 읽으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서문에서 정자(程子)가 『논어』를 읽은 뒤 읽었는지 아닌지 표가 안나는 사람이 있고, 읽고 어떤 구절이 좋다고 한두 구절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논어』를 다 읽고 ‘자기도 모르게, 손은 춤을 추고 발은 땀을 뺀다’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게 더 많은데, 일본 유학은 전문 유학이라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층이 있고 우리는 아마추어가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주자가 『논어』에 주(註)를 다 달아놨는데, 나는 어느 한 주도 취하고 싶은 주가 없었습니다. 실제 『논어』는 주 없이 읽어보면 읽을수록 ‘이런 경지가 있었구나’ 하는 구절과 내용이 한없이 많습니다. 논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경구입니다. 서구에서 말하는 탈무드의 경구나 성경의 경구 모음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낫다, 못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서 받을 수 없는 느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도대체 동양적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동양적 가치가 충(忠)과 효(孝)라고 봤습니다.

유교의 시원적 가치는 『논어』인데, 『논어』는 가치의 세계에서 형이하학이지 형이상학은 아닙니다.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논어』가 생활의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유지, 일상생활의 세계를 논한 것이 『논어』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시원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논어』 이래로 천년, 천오백 년이 지나서 형이상학으로서의 성리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양명학도 일종의 형이상학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가치의 가장 밑바닥에 상존하고 있는 것을 리(理), 이성으로 보고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리(理)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성리학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형이상학이 변질됩니다. 내가 볼 때 동양사상이다, 철학이다 하는 것은 형이상학이 되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서양의 경우 인식론이 발

4) 부지수지무지족지도지(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

전했기에 철학으로 발달하지만 동양학은 성리학이 형이상학이었기에 사회생활의 실용에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동양인의 가치지향과 행동의 원천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지향하는 것은 인과 덕, 즉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덕은 사람을 배려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논어』의 세계에서 가장 지향하는 것은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사람을 이끌어야 치자의 자격이 있다, 부끄러움을 앞으로써 스스로 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제도로써 사람을 이끌어가고자 하면, 다시 말해 형벌로써 다스리고자 한다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지 제대로 된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유교의 본령입니다. 유교의 본령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법입니다.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교의 세계에서는 덕치를 해야지 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생활세계의 유학이며, 현실적인 비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이 『논어』에서 지향하는 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예와 효, 충도 있는데 동양적 가치는 충이라고 쓰지 않고, 인과 덕, 예와 효로 대비를 했습니다. 실제 생활세계에서 행동은 부모에게 효를 하면 남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고, 나라의 질서를 문란시키지, 난을 일으키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가 기본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부모 봉양을 잘하는 것이 첫째이고,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둘째요, 아들이 잘나서 아들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셋째입니다. 후손이 조상을 만든다는 것이 효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의 총합으로 테제와 안티테제가 생기고 지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합의 행동 모델이 바로 군자와 선비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효와 덕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군자이고,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군자가 잘못되면 일식과 월식을 보는 것과

같이 세 사람 모두가 보게 됩니다. 공인이라고 해도 좋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데 세상에 이미 드러난 사람은 도덕적으로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세상 사람들도 슬퍼합니다. 군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추앙해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부끄러운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군자의 우리나라식 지향이 선비입니다. 우리 선비는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군자는 깨끗함을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선비는 가난함을 강조합니다. 배가 나오고 똥똥하고 부자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마땅히 야위어야 글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의(義)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인(仁)을 강조했습니다. 의(義)를 강조한 것은 춘추시대였습니다. 춘추시대의 정치가 전국시대의 정치보다 달랐기에 의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지요. 춘추시대는 전원 시대, 시골적인 낭만적인 시대였습니다. 그에 반해 맹자는 전국 시대였고, 그때는 지배와 피지배의 복종과 충성, 힘의 강약에 의해 판별이 되는 시대였기에 의(義)가 중시되었습니다. 『맹자』에서 양혜왕 편이 첫 편인데 ‘멀리서 찾아오시니 이득이 무엇입니까?’ 하고 왕이 물으니 ‘왜 이(利)를 물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의(義)일 뿐입니다.’라고 맹자가 대답합니다. 의(義)는 위아래의 충성 관계입니다. 그 충성의 도덕에서, 즉 율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의이고, 전국 시대부터 의(義)만 강조됩니다. 충성 맹세를 얼마나 잘 하느냐, 하극상을 얼마나 안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이었지요. 것처럼 맹자의 의(義)가 인보다 중시되고 의(義)만이 강조되면서 의(義)의 표현인 충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모두 의리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의 핵심이 의(義)이기 때문입니다. 충은 원래 그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였는데, 이 의미가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충이라는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임금에게 다하는 것으로만 변질되어 조선시대

는 모두 의(義)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義)로써 모든 것을 다해야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광조는 임금의 마음이 늘 바로 되어야 하고, 인재를 얻으며, 상벌을 분명히 하면 지치주의, 즉 최고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승안: 말씀해주신 동양적 가치의 내용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송 복: 잘 말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지요. 전제국가에서 군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효과를 생각하는 것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인데, 실제 조선의 경우 현실에서 의만 내세웠던 것이 문제였지요. 의만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입니다. 의가 나왔으니 그것에 대비되는 효(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효(效)에 대해 배운 게 없었습니다.

다른 글에서 상해임시정부에 대해 그것이 의(義)의 상징이었고 효(效)는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독립운동에서 가장 효(效)를 드러낸 사람이 이승만과 김성수였습니다. 이승만은 『일본내막기』를 써서 펄 벅을 놀래키고 세계에 한국을 알린 사람입니다. 김성수를 친일파라고 욕하지만, 김성수는 동아일보를 만들고 보성전문을 만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제국대학에 가는데, 우리 대학이 있어야 모국어가 발달하고 고차원의 모국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상해임시정부는 의(義)만 가지고 하는 중세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의(義)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 중 일부라도 김성수처럼 대학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모국어가 없었고, 모국어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내재적 근대화를 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국어가 없으니까 김수영 시인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은 내 시어가 일본어로 먼저 떠오른다는 점’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바로 여기서 나는 배웠습니다. 효가 없는 상태, 임시정부의 상태, 맨주먹으로 싸워라, 의(義)로 싸우라는 의(義)의 세계의 한계를 말입니다. 김구가 하는 말이 “최명길이 없으면 현실이 없고, 오늘이 없다, 하지만 삼학사가 없으면 오늘날 의(義)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義)만 갖고 싸워서서 효(效)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동양적 가치는 모두가 의(義)입니다. 효(效)도 많지만 그것은 장사치의 것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동양적 가치의 핵심은 의(義)만 있고 효과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를 군자라고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결국 우리 동양적 가치라는 것은 근대 사회에서 보는 조직의 세계, 국가와 정당과는 다른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라는 말도 없었고, 있다면 나라 국(國)이라는 글자만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는 곳은 궁이었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다산의 말에 민(民)은 부지국가(不知國家), 즉 국가를 알지 못하고 임금(宮)만 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직으로서의 국가는 몰랐던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500년 내내 내 세우던 삼강오륜의 윤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는 가족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이 『논어』에서는 크게 말하면 임금, 가족, 붕우(친구)이고, 이러한 세계 속에서의 원리가 삼강오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근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동양적 가치는 삼강오륜인데 불특정다수의 현대사회를 설명하기에는 분명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족에서 하는 행동을 확장하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근대사회입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선비문화 역시 허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500년 동안 손꼽을 수 있는 선비들은 1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율곡의 책을 보노라면 많이 읽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율곡은 우리나라에 고구려, 신라, 백제의 3국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아는 것은 대부분 중국의 복사판이었습니다. 「만언봉사」나 「진폐소」는 자신의 작품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동호문답」 정도만 인정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동호는 옥수동으로 한강이 굽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서울 사람들이 호수처럼 생각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율곡이 옥수동에서 태어나서 사가독서를 했습니다. 1년 여의 시간 동안 동호, 옥수동에 가서 공부하며 쓴 책이 바로 「동호문답」이고, 그것이 거의 유일한 창작입니다. 그 외에는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 중국입니다. 고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잃어버려서 선후를 하나도 모르더군요. 율곡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의 물음에 대해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랬는데 우리는 이러면 좋겠다는 대답이 「동호문답」의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우리를 경시하고 중국을 모화하는 것이 곧 사대주의 아닙니까? 율곡의 사대는 서애의 자강과 비교됩니다. 율곡은 중국을 본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대지심과 자강지심이 충돌한 것이지요. 율곡 사상을 이데올로기로 삼는 것이 노론이며, 노론의 지배가 지속되면서 근세에 이르러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우암 송시열입니다. 오로지 율곡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지요. 또 노론의 근세와 비슷한 사람이 면암 최익현이었습니다. 그 동시대인이 중암 김평묵이었고요, 위정척사파의 우두머리. 1876년 한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하는데, 위정척사파의 『중한집』 38집에 ‘이 개항으로 말미암아 남인이 득세한다. 이제 서인은 다 죽었다. 서인 노론이 죽는 것이 문제다’는 내용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후대가 면암 최익현입니다. 일본과 동학난으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 면암이 흑산도 바닷가에 끌려갑니다. 그때 그가 적은 말이 ‘기봉강산(箕封江山, 기자가 봉해준

나라)에 홍무일월(洪武日月, 주원장의 연호)의 해와 달이다.’ 하늘이 명나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흑산도 바닷가에 아직도 그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구한말 동안 학교 하나를 못 세웠습니다. 일본이 방해해서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 교육을 할 줄을 몰랐던 것이지요.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에 문자해독율이 78%였다고 합니다. 에도시대에 네 명의 남자와 결혼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1800년대 일본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인구의 70-80%가 문자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문자해독율이 5%도 되지 않았고, 양반가만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선 인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조선의 인구도 몰랐습니다. 경북 안동지역이나 서울에 선비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20만 명의 인구 중에 10%가 공부를 했습니다. 과거시험을 봐서, 서울서 선비의 반을 뽑았습니다. 1년에 30~60명, 나머지는 전국에서 뽑았지요. 조선조 과거 합격자는 전부 15,000명 정도였습니다. 과거를 많이 시행했다고 하는데, 1년에 30명도 채 못 뽑았는데 과거 합격자가 많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서울의 선비들, 안동의 선비들 이들을 빼면 선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조선의 선비문화가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정학섭: 저도 퇴계선생 공부모임에 나가보곤 하는데, 선생님께서 『주자집주』에 대한 무용론을 강조하신 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주자집주』가 한국 성리학이나 현대 유학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인데 과장이 크지 않을까요?

송복: 양명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주장하듯이 주자가 방대하게 주를 모아서 『주자집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자가 어떻게 모으고 썼냐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얻을게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기(氣)는 감성이고, 이(理)는 이성이다. 이가 감성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이성

은 타고나는 것이다. 하늘이 내려준 것이 이인테 그것은 한없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도 왜 선하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 기가 우리를 선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를 올리고 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성리학의 핵심입니다. 서경덕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가 연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를 잘 세우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주자의 일생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현실도 마찬가지여서, 조선의 학문은 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보는 있었는가? 진보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진화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조 학자들은 진화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퇴계와 고봉의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내용들이 후학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문구 하나가 없습니다.

유승무: 대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류의 논리』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류를 병적으로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향이 어디서 나왔고, 어떠한 동력으로 움직이느냐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송 복: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행한 연구 중에 한국인의 64%가 불평등을, 12%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조사가 있더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등을 원하지만 자기는 스스로가 높이 되는 불평등을 원한다는 겁니다. 일류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인문학을 해야합니다. 최고가 되면 또 차상이 최고로 올라갑니다. 최고를 더 최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강남에 학원가를 가보면, 아무리 사회적 지탄이 있다고 한들, 압구정이나 강남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양이 있었다면, 산의 남쪽이 양(陽)이라고 한다면, 한양의 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양으로 보아 한강 남쪽을 음(陰)이라고 했습니다. 관악산의 북쪽과 한강의 남쪽에서는 가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니지만 실상은 일류, 최고를 지향합니다. 바로 이 힘이 일류를 만들려고 하고 K-문화, K-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병철이 반도체를 만들 때 욕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K-팝을 이수만이 만들 때 어렵없는 것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류, 일류를 지향해나가니 마침내 방탄소년단도 나오지 않았나? 불평등 강화의식이 세면, 무의식적으로 박탈감도 높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제일 많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행복감이 켈 낮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없고서는 일류가 되지 못합니다.

정학섭: 한국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덕에 저자 자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평등에 대한 관심, 정치에 열광하는 것이 왜곡된 사회주의적 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정치적으로 잘못 유도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 국민의식, 가치관들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류의 논리와 같은 책에서 본다면 이중적 의식과 태도에 대한 처방, 방법, 교육의 방법, 대안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복: 한국인들은 드러내지 않고 사실상 일류를 지향하면서도 겉으로는 평등을 내세웁니다. 샌델의 논의를 보면 정의(justice)와 도덕에 대한 그 자신의 정의(definition)가 없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있지만 샌델의 정의는 없습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의는 없고, 남의 얘기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떻게 100만 부나 나갈수 있었을까? 정의에 대한 정의도 없는 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열심히 지향해갑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인의 특징이 ‘은근’과 ‘끈기’라는 조운제(국문학자)의 글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의 특징도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중국 사람이 쓴 『위지동이전』의 아득한 고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일본인들과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각개각인만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음주가무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과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주가무를 좋아한다는 것은 한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TV에서 시청하는 트로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곡이 모두 한을 내용으로 합니다. 한의 민족인 것입니다. 한이 쌓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이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 가야 합니다. 압구정동에 살아야 하고, 황제아파트에 사는데,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DNA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으로 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찍질도 안 됩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서자여사(逝者如斯)라.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유승무: 갈등이 없는 사회가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야말로 갈등의 용광로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과거에 비해 그 강도도 훨씬 세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구요. 무엇이 이런 갈등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선생님의 책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복: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진단을 한번 내려봅

시다. 내가 우리나라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유치원부터 해서 학교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학교 밖을 떠나본 사람은 이 학교 안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제도 안에 있어야 교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자 생활을 13년 하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흔히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백면서생이라고 합니다. 경험 세계가 다르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갈등이 첨예화하고 날카로워지는가? 우리나라의 갈등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날카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날카로운 것을 찾아 올라가 봅시다. 조선조에서 보면 유명한 울곡부터가 말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물론 울곡 자신도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나라 조정의 관리와 선비들의 비판이 너무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500년 내내 그랬던 것이 조선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날카로움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날카로움에서 자연히 갈등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사회는 갈등이 다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갈등은 그 자체가 날카로운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DNA를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까지 안 가더라도 조선조 500년 동안에 양반과 상민은 완전히 분리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민 밑에 천민이 있고, 노비가 40%를 차지하는 사회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일합방까지, 갑오경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양반은 5% 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양반은 무엇으로 양반이 될 수 있었나? 바로 한문이었습니다. 루터가 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계급이 달라졌습니다. 양반은 나이 30까지는 해야 과거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0대 초반이었지요. 25년 이상을 해야 문리가 겨우 터집니다. 특출한 경우 0.05%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문턱이 바로 한문이었습니다. 한글은 언문이라고 하여 못쓰게 했습니다. 영조실록에 ‘백성들이 글을 왜 알아야 하는가’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유승무: 통상 사회학자들이 인물을 연구할 경우, 맑스나 베버와 같은 사회학자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학자나 철학자들이 한국사의 인물을 연구할 경우, 원효나 퇴계와 같은 사상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곤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위대한 만남』이란 저서에서 서애 류성룡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시 선생님만이 갖고 계시는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있을 듯 합니다.

송 복: 나는 2002년도에 정년퇴임했는데, 퇴임과 더불어 제자들이 안 하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잘하는 것은 영어로 서구 학문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고 봤더니 한문을 못 하더군요. 나는 요행히 한문도 배우고, 일본어도, 영어도 배워서 이걸로 조선조 리더를 연구해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조에서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해볼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사회과학자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된 첫 번째가 정도전, 조광조, 이방원이 있었지만, 류성룡이 하나 떠오르더군요. 류성룡은 5년 7개월 동안 전시 수상으로 나라를 지켜낸 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 권력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누린 우암 송시열이 있더군요. 그는 영원한 중세인입니다. 중국 모든 왕조 중에 제일 형편없는 것이 명나라인데, 명나라 신종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어요. 여자를 데리고 짐승 노릇을 하고 13명의 여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지요. 우암 송시열은 그 신종을 모시고 만동묘를 세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인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석파 이하응이 있는데,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매력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떠 오른 사람이 이 셋이었습니다. 김옥균도 언급되려나?

어쨌든 이러한 까닭에 그 첫 번째 인물로 류성룡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류성룡을 연구하기가 쉬웠던 것은 549개의 상소문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데이터였습니다. 왜곡이나 거짓이나 잘못이 되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 상소문을 다 읽어봤어요. 책을 읽고 쓰려고 보니, 분석은 차치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순신을 천거하여 제자리에 앉혀 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은 수군이 아니라 육군이었고, 정읍 현감이었으며, 나이도 많고, 계급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류성룡은 그러한 이순신을 무려 여섯 단계나 끌어 올려서 정삼품 당상관을 만들어 전라좌수사로 보냈지요. 게다가 당시에는 무(武)를 경시하고 문(文)을 우대했는데, 다들 이순신을 아래로 봤지만, 류성룡만이 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율곡은 이순신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이순신은 율곡과 같은 덕수 이씨였고, 병조판서를 하면서도 간과했습니다. 류성룡만이 그를 특별하게 보고, 전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여 왜군의 수군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순신을 내려 보냈죠. 이렇듯 이순신을 본 것이 위대한 만남이라고 봤습니다. 조선 수군은 오직 이순신의 수군이었죠. 원군이 있었지만, 이순신만이 14개월 만에 수군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순신을 찾아낸 그 자체가 위대한 만남 아닐까요?

정학섭: 선생님께서는 류성룡의 지인지감 능력,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능력을 크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애 류성룡과 충무공 이순신의 만남이 나라를 전쟁에서 구하였고, 이 ‘위대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애학회를 창립하시고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에 관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다양하고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두지휘해 오셨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송 복: 어린 시절 진사이신 조부로부터 경전을 배우면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인물들 얘기를 많이 들었고, 교수가 되기 전부터 나라를 구하는 리더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조선 사람으로서 리더십에 대해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서애 류성룡, 우암 송시열, 석파 이하응,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을 써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임란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육지의 류성룡과 바다의 이순신이었는데, 이들이 없었다면 나라의 성립이, 재조(再造)가 안 되는 나라 형편이었어요. 1542년생 서애, 1545년생 이순신,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이웃에서 서로의 인물됨을 봐왔었습니다. 선조도 서애의 말은 귀담아들었어요. 서애 선생은 온화한 인품, 강직함, 예리함을 갖추었고, 사방에 적이 없었어요. 조선조 신하들 가운데 조정에 있는 동안 유배나 탄핵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육품을 정삼품 당상관으로, 6단계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이순신이 14달 만에 동양 최대의 수군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러한 안목을 류성룡이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서애가 이순신을 수군절도사로 만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것이 바로 서애의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아니고 무엇이였겠습니까? 사람을 알아보고 천거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류성룡은 여기에 더해 뛰어난 시인이었죠. 내가 ‘자유와 귀의’라는 제목으로 서애 선생의 시에 대해 쓰기도 했는데, 자유주의적 정신이 있으니 시를 썼고, 시를 쓰니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강직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할지(割地)전쟁이었어요. 한강 이남은 일본이, 한강 이북은 중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임란을 ‘번리지전(藩籬之戰), 즉, 울타리를 치는 전쟁이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한반도 분할전쟁이었던 셈인데, 임란 때 한반도의 분할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과 류성룡의 위대한 만남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분할이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서애 류성룡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자들이 많이 해왔

고, 그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자들이 해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국민 대중들에게 서애의 활동과 사상의 위대함이 잘 전달되지 못했고, 그 교훈이 전파되는 것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들도 많아서 부정적 평가도 많았어요. 2015년 KBS 대하드라마 <징비록>이 서애의 책 『징비록』과 류성룡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재조산하(再造山河)’라는 말이 류성룡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서애 연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역사적 사료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서애학회를 창립했습니다. 전문 연구자들의 논문집인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이라는 단행본을 펴냈고, 학술지 『서애연구』도 지금까지 제7집까지 발간했고, 이제 8집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서애의 생애, 문학, 철학, 역사관, 후속 학파 등으로 연구 지평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서애학회와 함께 징비연구회도 곧 창립할 예정입니다. ‘징비하지 못한’ 조선은 결국 임란 실패를 ‘징비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징비(懲毖)가 다른 게 아니고,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원한과 분노에 싸이지 않고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동시에 현재를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선으로 꿰뚫어지는 것이 징비입니다. 징비를 해야, 현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의지, 심성, 안목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애학회는 서재진 교수가 주도하고, 징비연구회는 이진규 교수를 중심으로, 정학섭 교수가 도와서 잘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박수호: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는 『위대한 만남』을 위대한 ‘전쟁사회학’으로 읽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는 상존하는 전쟁의 위협 하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학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를 주목하여 연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책이 오늘날과 같은 전쟁의 시대에, 특히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하여, 후속 세대 한국 사회학자들에게 던지는 가치나 함의는 무엇일까요?

송 복: 6.25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모두 잠시 침묵) 나는 어렸을 때 인민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밤이 되면 빨갱이 세상이 되어 우익동네를 쳐내려 갔어요. 경찰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그랬어요. 1945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이 지키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큰 산에는 대부분 빨치산이 있었고, 밤만 되면 양식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식량을 주었다고 알려지면 주재소에 끌려가서 죽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6.25가 일어나니까 빨치산 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갔습니다. 경찰이 죽였다고 하는 기록들은 상당 부분 사실일 것으로 봅니다. (말꼬리를 바꾸시고) 한미동맹이 성립되고 구호 물자가 왔습니다. 결국 6.25를 통해서 군대를 키웠고, 미국 유학을 거치면서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배웠는데, 전쟁이 아니었으면 배울 수나 있었을까요? 만약 빨치산을 소탕할 수 없었다면 우리도 베트남 꼴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전쟁사회학이라면, 6.25의 사회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쟁 덕분에 우리가 10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봐요. 6.25와 전쟁사회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계를 세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명호: 선생님께서는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갈등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

하고 있는 갈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가 연대와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송 복 : 한국사회에서는 세대갈등, 젠더갈등, 이념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계급갈등이나 지역갈등이 아직도 가장 심각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계급이 고착화된 나라였습니다. 95%의 국민은 천민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1930~40년대 3~4만 명에 달했던 일본 유학생이 일본 지식을 전수 받아왔고 이를 통해 상층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45년부터 6.25를 거치면서 80년대까지 농업사회에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산업사회에 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60년부터 30년 동안의 결과로 산업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농업사회의 특징은 경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180일은 놀아야 합니다. 봄에 일을 시작하지만, 농사는 여름 3개월과 가을 추수 때, 6개월만 열심히 일합니다. 계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놀아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놀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경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쟁이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입니다. 싸우기 시작한 것은 반세기가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쟁이 몸에 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경쟁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면 괜찮은데 경쟁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높은 것은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상층은 특혜를 받은 상층이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주(oblesse oblige)가 있어야 합니다. 나(상층)는 특혜를 받았기에 희생과 배려,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Old Rich, Old High', 우리는 'New Rich, New High', 즉 당대 부자, 당대 권력자입니다. '올드'에서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됐는지를 못 봤지만 전해지는 권력만 알 뿐이지, 그것에 대한 원한은 알기 어렵습니다. 당대의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추하게 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잡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상층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봤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나보다 더 잘나서 그럴까? 특혜와 부정으로 된 것을 알기에 상층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없고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층은 역사가 없습니다. 'No History, No Responsibility'입니다. “난 좋은 대학 갔는데 너희는 못 갔다. 경쟁을 이기고 들어갔다.” 실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학에 들어갔나? 운이었다. 실력이 있었지만 커트라인에서 맴돈다. 많아 봐야 10점, 20점 차이일 뿐이지. 운이었다.” 그런데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상층은 우리가 운 좋게 (상층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덕으로 된 것이지 실력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논어』에 부이무교(富而無驕)라, 부자가 되어도 교만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이유교(富而有驕)입니다.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빈이무침(貧而無諂)하고, 가난하면 아첨하게 되어 있는데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역사가 있는 나라는 빈이무침합니다.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량하고 신사적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없기에 갈등이 더 예리할 수밖에 없고 첨예화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건 총리가 사회통합위원장이었을 때, 사회통합위원들 대상으로 사회통합이 뭔가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일은 하나가 되자는 것이고 사회통합은 social integration 또는 cohesion이다. 통합은 여러 개로 분화하는 것이다. 통합이 뭉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갈등의 수준을 낮추려면 우리가 타고난 예리함, 강한 비판 정신이 수그러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 세대가 지나야 합니다. 첨예한 갈등 구조를 낮추기

에는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한 세대 동안에 경험하려고 하니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박수호: 갈등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상위 계층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선생님의 오래된 분석과 진단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송 복: 어느 사회나 특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도 특혜 아닙니까? 자신의 피와 땀을 통해서 되었다지만 안된 사람에 비해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고, 안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야 합니다. 운이 따라서 나는 되었고 특혜가 있었다고 책임을 지는 사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화랑도가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다산 정약용은 삼국 중에서 백제가 최강이었고 망하기는 제일 먼저 망하더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논의에 그렇게 나옵니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라가 어떻게 삼국통일을 했을까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는 화랑도라고 봅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 사례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102명의 인물 중에 82명이 신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소년장수 관창, 18살이었습니다. 관창이 4번째까지 도전했습니다. 계백이 관창을 3번째 돌려보냈고, 4번째 오니까 관창을 죽이면서, “우리는 싸워 봐야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어린애가 그렇거늘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5천 결사대로 싸우다 죽고 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입니다. 토인비의 역사 연구의 마지막 결론부에 21개 문명이 있습니다. 어느 문명이 살아났고, 어느 문명이 망했는가의 결론은 충성스럽고, 희생적이

며, 공고히 단합된 5%의 집단만 있으면 그 문명은 절대 안 망한다는 결론입니다.

정승안: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의 근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 복: 우리나라 고전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춘향전이 25쪽, 심청전은 20쪽 정도였습니다. 40페이지 정도가 안되는 내용으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글을 이태진(서울대)이 썼더라구요. 엉터리라고 봐. 25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상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수백 편의 글이 나왔어요. 서기 천년에 이미 수백 페이지 짜리가 3권이나 나왔을 정도예요. 이는 상상력의 빈곤의 정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지적으로 문맹의 세계에 살고 나라의 틀이 아쉽게 되어 있던 나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사람은 일본이다. ‘일본이 없었다면 북한의 꼴과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봐요. 일본의 1700년대의 통신사 관련 기록을 보면, 통신사들이 쓴 내용에서 ‘일본 농민은 천국에서 산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무라이들이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만 내면 자유라고 했고, 부역은 사무라이가 사람을 사서 시켰던 것이예요. 당시의 조선 농민은 다산 정약용이 시에서 언급했던 절량시(絶陽詩, 남자의 성기를 잘랐다는 시)에 대한 언급에서처럼 엄혹했어요.

또 고종 20년과 일제 36년을 살았던 촌로들은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저수지와 농사 소출이 많아 지니 살만하게 되었다고 모두들 말했어요.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구가 불어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조선 왕조에서는 인구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일성록에 1875년에 675만이었는데,

1900년에 조사하니 500만이더라는 거예요. 인구통계도 낼 줄 몰랐다는 거지요. 일본인이 파악한 자료에는 1,200만에 이른다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1945년의 인구가 3천만이라고 했어요. 삼천리 강산에 삼천만 동포라고 했지만 2,500만 정도였어요. 35년 동안 인구가 2배가 늘어난 셈인 거지요. 이는 생산력이 먹고 살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의 산업화와 근대적 기술의 전수가 연계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수호: 선생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또는 스승님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송 복: 우리 시대는 대학생들에게 배웠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말⁵⁾이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사가 말하는 ‘부작난화이십년(不作蘭花二十年)’처럼, 난을 치지 않다가 어느 날 난초를 그렸는데 최고의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제(畫題)를 쓰기를 법가인인전(法可人人傳)이라. 법이나 이론은 사람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론을 만드는 것은 전해줄 수 있는데 그 이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론을 만드는 것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동처럼 정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감흥(感興), 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신이 흥하기 위해서는 인인소자지(人人所自知)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스스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지 누구는 가르쳐서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공자에게 스승을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스스로 도달해야 한다고 했지. 맹자는 아성(亞聖)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을 오랫동안 하게 되

5) 추사가 그린 그림 ‘불이선란(不二禪蘭)’을 말한다.

不作蘭花二十年(부작난화이십년) 난을 치지 않은 지가 이십년

偶然寫出性中天(우연사출성중천) 우연히 본성의 참 모습을 그려냈구나

閉門寬尋尋處(폐문먹먹심심처) 문 닫고 찾고 또 찾은 곳

此是維摩不二禪(차시유마불이선) 이 경지가 바로 유마거사의 불이선이로다.

면 인인소자지(人人所自知)가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은 그 아랫 단계인 것이지요. 학문은 스스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데모만 하다가 교수가 된 것은 특혜예요. 그 특혜를 받았으니 책임 의식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뭐라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가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림 3> 추사의 <不二禪蘭>



정승안: 사회학은 서양에서 유입된 학문입니다. 사회에 대한 개념이나 공동체와 같은 개념을 동양에서는 사회학(社會學, Sociology)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송 복: 사회의 어원은 society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학으로 번역되었을까요? 사(社)는 토지 귀신, 직(稷)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토지와 곡식의 신들이 합해져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던 거지요. 그런데 ‘사회를 토지 귀신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나?’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구요. 이 사회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한문을 제일 잘하는 것은 일본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중국보다 더 잘해요. 이는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집에서 공부를 하는가 아닌가를 기준을 잡으려면 그 집에 어떤 사전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전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학문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일본의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 1883~1982)라는 학자가 개인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사전인 한문일본어사전(大漢和辭典, だいかんわじてん, 다이칸와지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14권이에요. 개인 출판사에서 발간해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서는 강희사전(康熙字典)이 최고예요. 청나라 강희제 때가 최고의 왕조였어요. 강희, 세종, 옹정제로 이어지며 역사적인 나라로 만들었던 황제들이었어요. 요새에 비견해보기 어렵지요. 명나라는 그 땅이 450만에서 500만 평이 될까? 청나라는 1,400만 평까지 확장되었다가 마지막에 750만 평이었는데 청나라 최고의 융성한 때가 강희제였는데 그때에도 겨우 4권의 사전밖에 만들지 못했던 말이에요. 모로하시 데쓰지가 만든 사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은 일찍부터 학문이 발달했어요. 세계 최초의 소설이 일본에서 나왔던 것이 대표적이고. 일본의 궁녀였던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973년-1014)가 쓴 겐지 모노기카리(源氏物語)⁶⁾라는 소설이 서기 1,000년에 나왔는데, 셰익스피어는 1,300년대, 돈키호테는 1,600년대에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김

6) 일본 헤이안 시대 중기에 성립한 일본의 모노가타리계 장편이야기이자 소설을 말한다. 도쿠가와 미술관과 고토미술관 소장품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2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시습의 금오신화가 최초의 한문 소설인데 기이한 귀신 이야기를 모아서 쓴 전기소설로 1,450년에 나왔어요. 일본이 얼마나 일찍부터 문학에 있어서도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에 결사 사(社)라는 말이 있는데, 결사의 집합체, 조직의 집합체, 단체의 집합체라는 말로 사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옥스퍼드사전에 나온 말로 번역한 말이었기에 사회의 번역어가 된 것이었어요.

박수호: 사회학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구사회학에서의 연구 대상에 있어서는 동양과 서양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 복: 서구의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처음부터 조직, 단체, 결사와 같은 2차집단이 기본적인 대상이었습니다. 1차집단은 가족, 2차집단은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조직으로서 기업이었어요. 여러분이 사회학을 배울 때 1차집단과 2차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이었지요. 무엇보다도 서구에서의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모두 2차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서구사회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주축이 되는 조직입니다. 맑스와 베버의 논쟁에서 자본주의가 뭐냐에 대해,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고 노동을 팔아먹고 임금을 받아먹는 노동자 계급이 등장한 계급사회를 자본주의사회라고 정의했어요. 맑스가 죽을 때 베버는 19살이었는데, 1864년에 태어난 베버는 맑스가 사망할 때만 해도 아직 어린 학자였어요. 그 뒤 맑스에 대해서 베버가 비판을 하는 것으로부터 베버의 사회학이 시작됐어요. 'From Marx To Weber'가 사회학의 시작이었던 셈이지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 학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베버가 처음 쓸 때는 챕터(chapter)나 센텐스(sentence)가 없이 전

체로 이어져 있었어요. 밀스(C.W. Mills)가 센텐스를 나누었는데, 밀스가 편집을 잘했어요. 독일어로 읽는 것보다 밀스의 편집이 더 좋다고 평가받았어요. 여기서 자본주의가 뭐냐? 맑스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구성이라고 하지만 충분조건은 못 됩니다, 필요조건은 되지만. 자본주의의 충분조건은 안정적, 합리적,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에요. 이 기업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 기업이 2차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회는 모두 2차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것, 2차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서구사회학의 핵심 관심입니다. 2차집단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연구 대상이 타자입니다. 타자는 불특정 개인이며 불특정 개인들의 다수를 말합니다.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일도 안 해봤고, 불특정다수의 개인을 사회학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개인인 타자를 연구하는데, ‘왜 타자를 연구하는가?’라고 하면, 자아를 연구하면 내부적이며 심리적인 철학의 문제에 들어가기에 철학에 맡기고 타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예요. 이 타자의 집합체가 바로 ‘군중’이 되고 ‘대중’이 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대중, 뜨거운 대중, 원자화된 대중, 군집된 대중으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서구사회학의 주된 연구 대상인 것이지요.

정승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부담이 되실 줄은 압니다만,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동양사회사상학회에서는 동양적 가치, 동양의 사상적 관점에서 사회학과의 만남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 복: 서구에서의 사회학적 관점과 달리 동양, 특히 유교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동양적 관점에서는 철저하

게 1차집단에 주목했어요. 1차집단의 전형이며 핵심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 유교사회학은 가족사회학이며 가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교는 대표적인 가족의 교리입니다. 가족을 원칙으로 하는 가르침인 것이지요. 유교라는 것은 바로 가족의 바이블(Bible)입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바이블이듯이 유교는 가족의 바이블이에요. 그러면 유교사회학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사회학은 2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1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유교사회학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2차집단도 1차집단적인 성향과 관계를 많이 갖고 있어요. 1차집단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으니깐 유교사회학이라는 이름이 시비거리가 되더라도 유교사회학이라는 말로 시작해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유교정치학, 유교경제학은 성립되는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유교사회학이라고 잠정해 두고 얘기해봅시다.

유교사회학은 1차집단입니다. 1차집단말고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유교는 가족의 교리이고 바이블이라고 했어요. 유교 가족을 넘어서는 다른 내용이 있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족적이에요. 삼강오륜이 바로 가족 교리입니다. 삼강오륜을 넘어서서 유교를 생각할 수 없다면 유교는 가족교리인 것이지요. 다음에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가족이 유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아간다고 봅니다. 제가치국(齊家治國)인데, 평천하(平天下)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치국이 핵심이지요. 중국은 봉건제국이었으니, 봉건을 합친 것이 제국이었습니다. 제가(齊家)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齊)는 옥편에 고르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고르게 만든다는 것은 가족의 화합과 화목과 안녕과 안정을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나? 바로 감시입니다. 부모형제와 더불어 소홀히 하는 것이 감시인데, 제가에는 감시가 개입됩니다. 서로서로를 감시하게 되어있어요. 자아를 돌아보는 것과 같이 가족에서만 감시가 철저해지는 것이 없어요. 중용(中庸)에서 불현어은(不現於隱) 불현어미

(不現於微)라는 말이 있는데, 가족의 안에서만큼은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입니다. 화목과 화합만큼이나 감시가 같이한다는 것이지요. 제가를 제대로 한다면 저절로 치국이 됩니다. 사실은 연장이 아닌데 선행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당대에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제가를 잘하면 치국은 저절로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齊家) 이전에는 수신(修身)이었습니다. 제가(齊家) 다음에 치국이 되는가를 사고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왕이 제가를 유교의 교리대로 바이블대로 제가한다고 해 봅시다. 왕이 제가를 그렇게 한다면 폭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조정 대신이 제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압정(壓政)을 할 수 있을까? 아전이나 관리가 제가를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포악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는 저절로 치국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論語』에 처음으로 나오는 장이 학이시습(學而時習)입니다. 다음이 가족편이에요. 가족은 제가의 핵심이 효제(孝弟)에 있다고 봐요. 효는 효도(孝道), 제(弟)는 공손할 제, 형제간에 우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논어』에서는 효제를 기본으로 봤어요. 더 나아가 사회윤리, 국가윤리, 개인행동에서도 효제가 기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효제하는 사람은 불호범상자(不好犯上者)라고 했어요. 윗사람에게 대들고 범하지 않는다. 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불호작난자(不好作亂者)입니다, 나라에서 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제가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태평성대(太平聖代)가 된다고 보는 것이 유교사회학의 근본 논리입니다. 그러니 동양사상, 유교, 불교와 같은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서구사회학과 연결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있고 이 시대에 매우 의미있는 작업입니다. 동양사회사학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성찰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후학들에게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유익하고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일동 박수).

송복(宋復) 교수의 주요 이력과 저술 목록

I. 주요 학·경력 사항

1956~1960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1968~1970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석사)
1971~1973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석사)
1977~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정치학 박사, 정치사회학 전공)
1975~200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83.1~1984.1	아이오와 대학 (미국, 아이오와주) 객원교수
1992.8~1993.8	워싱턴 대학 (미국, 워싱턴주) 객원교수
2002~2010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겸 연세대학교 특별 초빙 교수
2002~현재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2008	「우리 시대를 이끌어 온 사람들 50인」 선정(방일영문화재단)

II. 주요 저작 및 학술 논문

1. 단독저서 (Monographs)

- 1980/1991. 『조직과 권력』. 전예원/나남.
1990/1997.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 나남/경문사.
1995. 『열린 사회와 보수』. 조선일보사.
1999/2003.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생각의 나무.

2007. 『위대한 만남: 서애 류성룡』. 지식마당.
2007. 『일류의 논리』. 조갑제닷컴.
2011. 『조선은 왜 망했나』. 일곡문화재단.
2014/15.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가디언.
2015. 『리더십 인문학: 사회과학의 지평(地平)』. 시대정신.
2016. 『특혜와 책임』. 가디언.
2023. 『중용(中庸) 그리고 천명(天命)』. 철학과 현실(출간예정).

2. 편저

1984. 『사회불평등 기능론』. 전예원.
1986. 『사회불평등 갈등론』. 전예원.
1989. 『볼세비키 혁명』. 법문사.
1996. 『제2의 한국, 베트남』. 미래인력연구센터.
2011.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연세대출판부.
2013.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북오션.
2006. *Modern Korean Society: Its Development and Prospect*. Edited by Hyuk-Rae Kim and Bok Song.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19.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 송복·서재진 편. 법문사.

3. 역서

1976. 『성숙한 사회』. 탐구당.
1977. 『도시사회학』. 을유문화사.
199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 청계연구소.

4. 학술 논문 및 학회 발표문

1974. "Emile Durkheim: His Theoretical Position on Community as His Theoretical Framework." 31: 223-236.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5. "Two Tendenc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Consciousness and Social Action." 『인문과학』 33・34: 247-26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6. "공식조직에 있어서 평형성(Equilibrium)에 관한 연구I: 공식조직의 Oligarchy 특징." 『연세논총』 13(1): 161-193.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7. "공식조직에 있어서 제도적 자율성의 결정범위에 관한 연구: 동일체감력과 환경적 압력의 상호관계에서." 『연세논총』 14(1): 139-169.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7. "A Sociological Analysis of Political Processes in the Legislative Branches." 『인문과학』 38: 99-127.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8.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체제관계와 체제성립을 중심으로." 『정경연구』 14: 64-80. 문화방송 경향신문 부설 정경연구소.
1981. "매스컴과 社會發展." 『신문과방송』 132: 75-83. 한국언론연구원.
1981. "예의 이념적 고찰: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인문과학』 45: 137-168.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1. "현대정치사회와 예의 기능." 『합동학술대회논문집』(한국정치학회 재복지 한국인정치학자대회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21-37.
1982. "리더쉽 유형의 현대적 조명." 『현대사회』 2(1): 178-186. 현대사회연구소.
1982. "유형원 관계개혁론의 현대적 조명: 경관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16: 1-23. 한국정치학회.
1984. "사회불평등의 기능적 접근-기능적 필요성의 한계." 『사회불평등 기능론』. 송북 편. 전예원: 25-76.
1984. "일차집단과 국민윤리: 이론적 틀을 통해 본 유추적 분석." 『한

- 국민의 윤리관 Ⅱ』. 국민윤리연구실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9-155.
1984. “한국의 파워엘리트: 이동과정을 통한 엘리트 분석.” 『사상과 정책』 1(2): 84-92. 경향신문사.
1984. “현대산업사회와 수렴이론-비교사회학적 관점.” 『현대사회와 마르크스изм』. 박순영 외. 연세대학교출판부: 246-282.
1985. “계급갈등과 계급구조.”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한국사회학회 편. 현대사회연구소: 101-133.
1985. “권력집중화의 사회구조적 요인.” 『한국사회학』 19: 69-89. 한국사회학회.
1985.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과 사회계급-권력유지와 이데올로기 통합 기능.” 『사상과 정책』 2(3): 16-28. 경향신문사.
1986. “동구제국의 사회구조적 특징-양차대전간 서구식 민주주의 수용의 실패와 연관하여.” 『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편. 박영사: 173-202.
1986. “사회갈등의 유인과 통제.” 『현대사회』 6(1): 58-66. 현대사회연구소.
1986. “사회불평등의 갈등론적 접근.” 『사회불평등갈등론』. 송복 편. 전예원: 13-29.
1986. “政治社會學의 研究方法을 위한 몇 가지 模型의 試圖.”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황성모 편. 심설당: 449-472.
1987. “다변 다원화사회와 교육.” 『교육개발』 9(4): 20-29. 한국교육개발원.
1988.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이념의 확립-급진주의 사상의 대두와 도전.” 『경제민주화의 기본구상』. 한국경제연구원 편. 한국경제연구원: 37-81.
1988. “韓國의 多元主義-社會生物學的 觀察.” 『轉換期の 韓國社會』. 삼현김대환박사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법문사: 151-171.
1989. “사회문화적 변화와 노사관계.” 『복지사회와 노사관계』. 아산사

- 회복지사업재단 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43-54.
1989. “소련 사회의 구조와 특성-계급구조와 계급이동.” 『불세비키혁명: 이상과 현실』. 송복·김달중 공편. 법문사: 137-170.
1989. “정치자금의 특성과 개선방향.” 『한국의 민주화와 선거문화』. 윤천주 외. 현대사회연구소: 67-85.
1989. “지역갈등의 구조적 요인-지역이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와 민주화: 현실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편. 법문사: 269-289.
1989. “지역갈등의 역사적 설명.”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현상과 대책』. 한국사회학회 편. 성원사: 1-13.
1989.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 보도 사례를 통한 실증적 고찰.” 『사상과 정책』 6(4): 28-44. 경향신문사.
1989. “한국기업집단의 사회적 역할과 문제점-사회학적 시각.” 『한국기업집단의 과제와 대응책』. 한국경제사회연구원: 312-329.
1990. “권위와 불평등: 그 비판적 성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 Barrington Moore 저. 송복 역. 청계연구소: 190-206.
1990. “民衆論에 대한 社會學的 分析.” 『한국 민중론 연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55-81.
1990. “부동성 사회-한국사회 변화의 특징.” 『남북한 변화의 실상과 통일에의 조망』. 한국발전연구원: 37-64.
1990. “소련문화의 특징-그 사회학적 고찰.” 『소련의 개혁정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편. 법문사: 204-224.
1991. “비리성 갈등구조의 특징-시간지체성 발전과 관행성 비리의 상존.” 『2천년대를 향한 한국의 선택』. 동아일보사 편. 동아일보사: 477-515.
1991. “양반체계의 지배지속성-중인계급의 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다산출판사: 485-494.
1991. “한국 사회: 부동성 사회로서의 특징-공동체의 와해와 국가권력의

- 증대.” 『사회과학연구』 4: 287-306. 서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정치자금: 그 문제점과 처방-왜, 무엇이, 언제나 문제인가.” 『사회과학연구』 1: 219-239. 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2. “한국 사회의 변화와 儒學의 기능.” 『공자사상의 발견: 본원유학과 신실학』. 윤사순 · 한국공자학회 편. 민음사: 335-356.
1993. “부패의 정치 경제학.”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 129-143.
1993. “韓國上層의 社會의 特性에 관한 研究.” 『학술연구논문집』. 양영회: 221-330.
1994. “21세기 선진한국의 미래상.” 『선진한국의 정책과제와 방향』. 21세기위원회: 1-12.
1994. “2중과세: 그 사회학적 해석.”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포럼』. 한국행정연구원: 20-33.
1994. “사회병리와 사회유대: 신헌리주의의 지향.” 『21세기를 향한 한국형 공동체의 모색』. 21세기위원회: 1-12.
1995. “21세기 사회와 共同體 生活文化”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9-22.
1995. “사회발전과 공동체 재건: 공동체 건설의 국가적 의미.” 『국가전략』 1(1): 137-155. 세종연구소.
1995. “한국인의 사회문화의식.” 『문화정책논총』 7: 17-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95. “효사상과 사회발전.” 『효사상과 미래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협력실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63-575.
1996. “건강한 선거문화 연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거문화』(제3회 정신문화연구원 포럼 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5.
1996.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환경.” 『2000년대를 향한 인간 생활환경 연구의 방향모색』.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45-67.
1996. “사회발전과 안전문화.” 『가정의 안전문화 정책』.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12.

1996. “삶의 질 향상과 세계시민의식”, 『동아시아 연구』 89-105. 동아시아 연구회.
1996. “시민공동체사회: 그 형성과 전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편. 나남: 43-84.
1996. “지역갈등 재연구.” 『정책포럼』 18: 69-8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996.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합-갈등·통합의 주체자로서의 고위직층.” 『형성과 창조』 3: 1-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가풍의 사회화 기능: 가풍상실가정의 사회적 진단.” 『통일로』 106: 86-97. 안보문제연구원.
1997. “예의 총합적 실행자로서의 군자 연구.” 『인문과학』 61: 231-266.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또 하나의 지향상으로서의 선비 연구.” 『전통과 현대』 5: 267-280. 전통과 현대사.
1998. “햇머니사회의 출현과 적응: 뉴엘리트의 등장.”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남덕우 외. 삼성경제연구소: 349-373.
1999. “근대 이행기 중인 연구의 필요성.” 『한국 근대이행기 중인 연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신서원: 17-60.
2000. “왜 리더십인가: 적불균형론.” 『리더십강의』. 제임스 M. 번스 저. 한국리더십연구회 역. 생각의나무: 9-19.
2005. “지역화합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지역갈등해소와 화합의 길』 (심포지엄 자료집). 한가람회: 7-14.
2007.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국 국민에게 고함: 미래 한국을 준비하며』, 자유지식인선언 편. 기파랑: 251-264.
2011. “이승만의 저술 활동과 역사적 의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 송복 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2. “선비의 전형(典型): 박태준의 선비 사상.” 『박태준 사상, 미래를 열다』. 송복 외. 아시아: 13-54.
2012. “특수성으로서의 “태준이즘(Taejoonism) 연구.” 『태준이즘』(청암 박

- 태준 연구총서 1). 송복 외. 아시아: 105-115.
2017. “한국인의 의식 전환: 두 가지 과제.” 『한국사회, 어디로?』. 김우창 외. 아시아: 97-124.
2019. “류성룡의 시관(時觀): 미래지향성 리더십.”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 송복·서재진 공편. 법문사.
2020. “‘서애정신’이란 무엇인가.” 『서애연구』 1: 5-41. 서애학회.
2020. “류성룡의 중용 리더십.” 『서애연구』 2: 5-37. 서애학회.
2021. “자유와 귀의(歸意)-류성룡 시심(詩心)에서 읽다(1).” 『서애연구』 3: 373-396. 서애학회.
2021. “자유와 귀의(歸意)-류성룡 시심(詩心)에서 읽다(2).” 『서애연구』 4: 5-34. 서애학회.
2022. “자유와 귀의(歸意)-류성룡 시심(詩心)에서 읽다(3).” 『서애연구』 5: 277-304. 서애학회.
2022. “단헌 제국(帝國)의 단합과 류성룡의 열림 정책.” 『서애연구』 6: 5-55. 서애학회.